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기행

# 프랭클린 루즈벨트

## 대통령 기념관 방문 후기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미국 대통령 전기에 관하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곧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위인전을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훌륭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도록 권해주는 것이 좋다.

인류역사에 자취를 남긴 위인들은 공통점은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는 점도 있지만, 자기의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을 신념과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나갔다는 점도 있다. 또 한가지 공통점은 그들의 인생향로중에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한 어떠한 전환점(turning point)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전환점이란 성장과정 중에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위인전을 읽을 때에는 그냥 목적없이 읽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었으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또 어떠한 전환점이 그 사람을 그 길로 인도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읽으면 독서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송 은 경

데이비슨초등학교 도서미디어 교사  
okjoo07@gmail.com

위인전을 읽을 때는 정치, 경제, 의학, 과학, 문학, 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에 대해서 폭넓게 책을 읽는 것이 좋은데, 훌륭한 미국 대통령에 관한 전기

도 좋은 선택이라고 하겠다. 책을 고를 때에는 자녀의 독서수준에 맞는 책으로 고르되, 국민학생들을 위해서는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사진과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 게다가 학생들이 그 대통령의 생가, 사저, 그의 기념관 및 도서관등을 부모님과 함께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그냥 책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학습효과가 높다고 하겠다.

미국에서 2월 셋째주 월요일은 대통령 탄생기념일(Presidents' Day)이다. 원래는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념하기위해 제정되었다가 요즘에는 워싱턴과 아브라함 링컨의 탄생을 함께 기념하게 되었다.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매년 2월이면 워싱턴과 링컨 및 미국 역대대통령들에 대하여 배우고, 그 중한 명을 선택, 그의 일생과 업적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여 리포트를 써내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미국역사의 흐름속에서 미국 역사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대통령들에 관해 배운다.

필자는 가족들과 함께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즈벨트, 존 에프 케네디, 지미 카터 등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생가 및 기념관 등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 곳들을 방문하면서 각 대통령들의 성장배경 및 가족들과의 관계, 그들이 미국 역사에 남긴 발자취를 책으로만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두고 두고 기억에 남아있다. 이번 여행에서는 FDR이라는 약자로 잘 알려져있는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의 기념관을 들을 수 있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 기념관 전경



캠포벨로섬에 위치한 루즈벨트 캠포벨로 기념공원에 관하여

미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메인 주의 루벡(Lubec)에서 루즈벨트 캠포벨로다리를 건너면 캐나다의 뉴브런즈윅주 소속 캠포벨로섬이 된다. 이 다리는 1962년에 준공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캐나다에서 미국본토로, 미국본토에서 캐나다로 가려면 배나 카페리를 탔어야 했다. 캠포벨로섬에는 1964년에 세워진 루즈벨트 캠포벨로 국제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은 비록 지리적으로는 캐나다에 속하지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들 중의 하나였던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FDR)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사람들과 캐나다 사람들이 사이좋게 함께 일한다. 소유권도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가 함께 가지고 있고 재정 및 일반 관리도 함께 한다. 두나라를 연결하는 다리통과료및 기념관의 입장료는 없으며, 이는 캐나다와 미국간에 오랫동안 지켜온 우호적인 이웃관계를 상징한다.



FDR여름별장의 식당 ▲

캠포벨로섬은 연두색 목초지와 안개낀 숲이 바위가 많은 해안과 습지, 만, 모래톱이 있는 얇은 바닷가가로 둘러싸여진 아름다운 섬으로 1880년대부터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몬트리올 등의 대도시의 부유층들이 여름피서지로 택했던 곳이었다. FDR의 부모도 이 곳에 여름별장을 마련하고 어린 프랭클린을 여름마다 이 곳으로 데려와 승마, 항해, 수영, 낚시, 노젓기, 스케이트 등 야외 활동을 하며 모험심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프랭클린은 청년이 되어서도 어린시절의 추억이 서린 이 곳에 여름마다 찾아왔으며, 결혼하고나서도 이 섬을 즐겨찾아 자녀들과 함께 항해, 하이킹, 수영, 테니스, 자전거

FDR여름별장의 부엌 ▼



FDR여름별장의 세탁장 ▲

타기 등을 즐겼다. FDR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곳에 와서 집무중에 쌓인 피로를 풀고 새로운 힘과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고 한다. FDR이 “사랑하는 섬”이라고 부를만큼 애착이 큰 캠포벨로섬에 그의 기념관을 세운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2,800에이커의 이 기념공원에 있는 FDR의 여름별장에는 침실, 거실, 손님방, 식당, 부엌, 공부방 등에 FDR과 그의 가족들의 체취가 닿은 수수한 가구들이 그 당시의 생활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 여름별장에 딸린 5에이커의 대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있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하이킹 코스들이 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FDR) 대통령의 일생 : 인생의 전환점과 그의 업적**

프랭클린 루즈벨트(FDR) 대통령은 1882년에 허드슨 강 북쪽에 위치한 하이드 팍 소재 큰 저택에서 출생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였던 그는 어머니와 함께 독서를 즐기고 교회에 함께 다녔다. 어머니가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에게 음식과 옷가지, 꽃등을 보내는 것을 보고 자란 프랭클린은 크리스마스

때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그 지역에 사는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 직접 장난감등의 선물을 나누어 주곤 했다. 프랭클린은 집에서 가정교사에게서 교육을 받았으며 가족들은 물론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는 불란서 가정교사로부터 불란서어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생활에 대하여도 배웠다

프랭클린은 14살에 처음으로 그로톤이라는 기숙사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급우들은 두 살이 더 많은 프랭클린을 따돌렸다. 그들은 프랭클린의 불어액센트, 공손히 절하는 것, 심지어는 항상 정시에 도착하고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것조차도 놀려대었다. 프랭클린은 스포츠를 통해 이 학교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그로톤 학교의 기질을 몸에 익히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드디어는 급우들로부터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로톤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주지사나 상원의원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그의 부모가 정치계 입문을 달가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치에 뜻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기 위해서 학교의 토론 팀에 들어갔다. 그는 논쟁을 아주 잘 했는데, 이는 저녁 식사때마다 부모님이 프랭클린에게 그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북돋아주셨기 때문이었다.

이 당시 프랭클린은 교육가 부커 티 워싱턴이 자신이 노예였던 시절에 대하여 연설하는 것을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 그당시 뉴욕시 경찰국장이었던 프랭클린의 5촌 아저씨였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그로톤에 와서 연설을 하였다. 1898년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뉴욕 주 주지사 취임연설을 들으러간 프랭클린은 시어도어에게서 큰 감명을 받았다. 16세의 프랭클린은 점점 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에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남을 위하는 것을 배운 프랭클린은 16세때부터 이를 실천하기 시작한다. 그는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반주도 맡았다. 또 보스톤 빈민가의 소년들을 위한 캠프에서 두 해 여름동안 그들에게 수상 스포츠를 가르치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프랭클린은 해군장교의 꿈을 접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버드 대학과 컬럼비아 법대 대학원에 진학한다. 엘리노어와 결혼한 후에는 뉴욕주 주지사가 되었다. 39세에 그는 소아마비에 걸려 평생 휠체어를 타게된다. 그러나 그는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12년후 프랭클린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1929년에서 1939년까지 많은 미국인들이 직업을 잃었음.)과 제 2차 세계대전에 처한 미국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다. 1932년 후버 대통령과 대통

령 선거전을 치르고 있었을 때 직장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최초로 사회보장 제도와 실직 보험제도,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가격보조,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책정, 예금보험, 주식시장의 법규 등을 도입한 뉴 딜 정책을 약속하여 선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1933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명언을 남겼다. 39세 이후로 평생 소아마비와 싸워야 했던 FDR은 실제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했으며, 부인인 엘리노어와 함께 그들을 돕기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그들의 노력으로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

1940년에 FDR은 국민들에 의해 3선 대통령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하자 FDR은 영국에 극적인 원조를 제공하였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다음날 FDR은 일본에 선전포고하였다. FDR은 세계평화를 위해 세계대전에 참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를 상대로 싸우게 되었다. 방위산업의 고조로 미국의 많은 실직자들이 취업을 하게 되었으며, 그 후 FDR은 미국이 산업화와 군사기동력으로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1944년부터 건강이 악화된 FDR은 4선에 성공하였으나 45년 연합군이 유럽에서 승리하기 몇 주전 뇌출혈로 인해 63세를 일기로 사망한다. FDR은 미국역사상 보기 드문 위대한 대통령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FDR의 전기를 읽고나서 어린시절 그의 성품을 빚어준 그의 부모님, 가정교사들, 그리고 그의 인생향로의 전환점이 되어준 교장선생님과 시어도어 루즈벨트, 또 그의 평생 반려자로 그의 두다리가 되어준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가 처했던 여러가지 어려움들에 도전하여 승리한 그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남을 생각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키우려면 FDR과 같은 위대한 분들의 전기를 자녀들과 같이 읽고, 가능하면 그 분들의 생가나 기념관 및 도서관 등을 함께 방문하여 그분들의 삶의 자취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산교육을 체험하실 것을 권하고 싶다. (24)